

마한역사문화센터·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 '겉경사'

취임 1주년 맞는 우승희 군수 소감과 포부

“민선 8기 2년차인 2023년을 혁신영암 원년으로 삼고 전 공직자와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준비해 온 혁신의 토대에 더 나은 영암의 미래를 위해 청년 친화 미래선도 경제, 남도 역사문화 생태 관광 거점 조성,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실현,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변지 도약, 군민이 존중받는 주권 행정의 실현, 5대 균형 방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와 민선 8기 역점사업, 인구소멸 등 대책을 들어봤다.

-민선8기 취임 1년 역점 분야와 공약은

△관광 기본인 먹거리, 볼거리, 숙박시설을 정비해 영암에 오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경제관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불도와 구림 관광지를 활성화, 월출산 스테이션 F, 암벽등반장 재정비, 산림휴양시설과 관광숙박지 조성 등을 통한 천황사권 개발이 영암 관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공약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 공약으로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나불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

청년 친화경제도시 혁신시책 따뜻한 복지 등 5대방침 박차 官중심 아닌 民중심 행정 앞장

으로 변화시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암형 상생 일자리 산단으로 탈바꿈시켜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 '친환경 조선, 해상풍력 특화 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산단 체질 개선은 물론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나가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한다.

공약 10개 일자리 사업은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 구현, 군수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설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은 물론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

-민선 8기 역점 군정은 뭔가요.

△지금 4차산업혁명, 지역소멸,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단위 지자체는 지역소멸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지속 가능한 젊은 영암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공직자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행정이 앞에서 끌고 지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유치됐는데

△군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로 추천한 장소는 마한유적이 집중된 곳이 아닌 영산강이 한눈에 보이는 나불도다. 영암은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앙이다. 영암을 중심으로 나주와 해남, 전북까지 연결하는 마한 문화 확장성에서 영암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인근 목포, 무안, 신안, 함평, 나주, 해남 등 마한문화를 공유한 시군과 교통 접근성도 앞서고 있다.

-센터 건립일정은 어떻게 되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 문화권 관문인 영산강 입구 삼호읍 나불도에



우승희 영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청년친화도시 시책 발굴과 따뜻한 복지 실현, 군민 존중받는 주권행정의 실현 등 5대 균형 방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2024년 기본 및 실시계획 실시 후 2025년착공, 2027년까지 준공된다. 나불도는 미로공원과 캠프장이 추진 중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건립 된다면 관광객과 학생들의 휴식처이자 학습장소로 최적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남도, 문화재청, 마한문화권의 시군과 함께 가야문화처럼 마한시대 역사와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노력할 것이며 마한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위한 '신(新) 전남역사문화벨트' 조성에 앞장서겠다.

-월출산 생태 탐방원도 영암으로 유치됐다. 영암의 겉경사네요.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는 월출산국립공원 확장 이후 35년 만에 이룬 성과이며 영암군과 군민의 염원이 일궈낸 경사다. 월출산이 보유한 생태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탐방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난해 6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건의를 시작으로 환경부, 국회, 국립공원공단 본부 등을 방문하며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해 기울였다. 이번 결정으로 영암군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광 등을 통해 다양한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출산 생태탐방원 운영·조성 계획은



우승희 영암군수가 하우스 재배농가를 방문해 생육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 영암군 제공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부지는 서호들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인근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탐방원 건축기획용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교육관, 생활관, 암벽등반장, 자연놀이터, 체험실 등을 조성한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단순 숙박 체류시설을 벗어나 웰니스관광시설이자 자연생태, 탐방객을 잇는 생태탐방의 중심 역할을 한다. 부지 인근에 영암도기박물관, 하정용미술관, 구림전통한옥마을 등 영암군 관광지 45%에 달하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분포돼 있어 생태탐방원

과 연계한 상시적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다.

생태탐방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생태관광 일변지'로 도약할 수있도록 하겠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향우들과 영암을 사랑하는 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4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원 기탁자 대부분은 답례품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기탁을 당부해 훈훈함을 제공했다.

영암군은 67개의 답례품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도 특별하고 새로운 기부물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하장사와 식사데이트권'으로 눈길을 끌었죠?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이 화제가 됐다. 지난 왕인문화축제기간 답례품 체험을 진행했다. 데이트 체험은 영암군 유튜브 등 SNS에 공개하고 있다. 'F1 레이서와 함께하는 서킷체험권'도 지난달 13~14일 진행했다. 충북 흥성군, 광주시 등 총 7팀이 방문했다.

-혁신 시책 첫째를 '청년 친화 경제도시'를 꼽았는데요.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이 필요하다. 청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국가산단인 삼호대불국가산단을 서남권 경제 핵심거점으로 탈바꿈 시켜 선박 블록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조해 전기차, 지능형 디지털혁신산단, 친환경조선, 해상풍력특화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목표다.

영암은 2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민관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영암에 취직해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도 개발 지역인구소멸 예방정책 매진 "주요결정 주민투표로 혁신을"

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청년문화거리, 청년주택, 청년문화수당, 청년기금 조성, 청년마을만들기 등 정책을 추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도 시급한데.

△청년기회도시 영암을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 하고 지역경제 대전환을 통해 인구복원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암의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마을 코디네이터와 로컬크리에이터활동, 청년유통사업가 육성,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등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린 영암을 만들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개조 전기차 실증사업, 자동차 튜닝사업 등 산업생태계 다양화로 성장동력 확보, 대불산단 청년 일자리 확대, 영암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지역대표 고교육성,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암의 교육경쟁력도 강화하겠다.

-민선 8기 지향하는 군정 목표는

△농정 혁신과 주민자치 실현이다.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농산물 정책을 식품·가공·유통 분야까지 확대해 부가 가치를 높인다. 농가와 농협·군 행정이 협력해 농가소득을 유지하는 소득 중심 체계를 만들어 농작물 풍년·흉년·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보고 싶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일이다. 군민 생각이 영암군 정책이 되도록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영암거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추진해 보고 싶다. 주요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자치와 혁신을 이뤄 내겠다.

영암=이병영 기자